

-기 짝이 없다

극도의 정도 — 더할 수 없이 ~하다, 비할 데 없다

달갑지 않은 감정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. 짝은 ‘견줄 상대’라는 뜻으로,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 비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형용사	-기 짝이 없다	부끄럽다 → 부끄럽기 짝이 없다
하다 형용사	-기 짝이 없다	위험하기 짝이 없다
명사 앞	-기 짝이 없는	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
감정의 조건	달갑지 않은 것	기쁘기 짝이 없다는 틀림
띄어쓰기	짝은 명사	부끄럽기 짝이 없다
시제 불가	어간 그대로만	부끄러웠기 짝이 없다는 틀림

■ 언제 쓰나요

-기 짝이 없다는 형용사 어간에 붙입니다. 모음 규칙이 없고 앞에 시제를 붙이지 않습니다. 짝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감정은 반드시 달갑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: 부끄러움, 안타까움, 어이없음, 위험 등. 이는 문체상의 경향이 아니라 제약이며, 기쁘기 짝이 없다는 한국어 화자에게 어색하게 들립니다.

대부분 몇 개의 형용사로 쓰입니다: 부끄럽다, 안타깝다, 어이없다, 위험하다, 무례하다, 한심하다. 모두 못마땅한 것을 나타냅니다.

격식 있는 문어 표현으로, 사설, 성명, 공식 항의 등에 쓰입니다. 강도와 딱딱함 모두 너무나 정말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.

■ 예문

- 1 이런 결과를 보여 드리게 되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.
- 2 준비가 부족했던 점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.
- 3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다.
- 4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.
- 5 직접 만든 것이라 하기에는 조잡하기 짝이 없었다.
- 6 어이없기 짝이 없는 변명이었어요.

■ 비교

-기 이를 데 없다
거의 같은 구문이며 제약도 같습니다. 짝이 없다가 조금 더 흔하고, 이를 데 없다는 약간 더 예스럽게 들립니다.
부끄럽기 짝이 없다. / 부끄럽기 이를 데 없다.

-(으)ㄴ 정도로
정도로는 기준점을 제시해 정도를 가늠하고, 짝이 없다는 그냥 비할 데가 없다고 선언합니다.
말도 못 할 정도로 위험하다. (말도 못 할 만큼 위험하다) / 위험하기 짝이 없다. (더없이 위험하다)

더할 나위 없다
유용한 대조입니다. 더할 나위 없다는 칭찬으로 더 보탬 것이 없다는 뜻이고, 짝이 없다는 비판으로 비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.
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. (완벽했다) / 부끄럽기 짝이 없다. (더없이 부끄럽다)

■ 주의

- ✗ 합격해서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.
- 합격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.
짝이 없다는 달갑지 않은 감정만 강조합니다. 기쁨에는 긍정적인 강조 표현이 필요합니다.
- ✗ 그때는 부끄러웠기 짝이 없었습니다.
- 그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.
-기에는 절대 시제가 붙지 않습니다. 과거는 없다가 붙입니다.
- ✗ 무례하기 짝이없는 태도였다.
-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다.
짝은 명사이므로 없다 앞에서 띄어 씁니다.